

1950년대 문단의 결절, 강릉 청포도동인회

남기택(강원문학연구회)

1. 청포도동인회라는 사건

- 『청포도(靑葡萄)』: 한국전쟁기 강릉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'청포도동인회'가 발행한 시 동인지
- 1952년 창간호에 이어 이듬해 2집까지 발간
- 동인: 황금찬(1918~2017), 최인희(1926~1958), 김유진(1926~1987), 이인수(1928~2003), 함혜련(1931~2005)
-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전쟁기의 강원 지역 동인 활동으로 문학사에 기록
- 강원권에서 본격적인 현대적 문학장을 형성하는 계기로서의 상징적 위상

"1952년 강릉사범학교 사제가 함께 만든 이 동인지는 황무지와 같았던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강원문학의 시발점이 됐다."
(『道에 '문학 씨' 심은 잡지』, 『강원도민일보』 2006년 5월 8일)

2. 시 세계 양상

① 『청포도』 창간호(1952)

- 황금찬: 「한 송이 蓮꽃이 피기를」, 「石佛의 노래」, 「눈 오는 날에」, 「복사꽃」
- 함혜련: 「보리밭」, 「輓歌」, 「카—네송—二月溫室에서」, 「박꽃」
- 이인수: 「바다」, 「春信」, 「비」, 「누님의집」
- 김유진: 「杏桃」, 「石竹」, 「나팔꽃」
- 최인희: 「山길」, 「湖畔에서」, 「등불」, 「春風에부치는」

② 『청포도』 2집(1953)

- 황금찬: 「墓地」, 「梅花」, 「嶺」, 「아지랑이」, 「눈길」, 「보내놓고」
- 함혜련: 「옛날」, 「描像」, 「피리의 바다」
- 김유진: 「눈오는날에」, 「歸路」, 「湖水가에서」
- 이인수: 「春分」, 「바다」, 「밤」, 「作別」, 「무지개」
- 최인희: 「靜夜」, 「待春賦」, 「窓」, 「薔薇밭에서」, 「夕陽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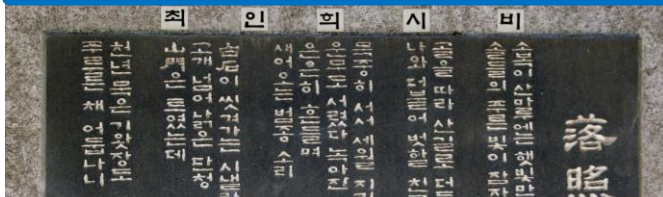
폭넓은 서정의 기반, 황금찬

- 청포도동인회를 주도한 인물은 황금찬
- 당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, 정식 등단 이전이지만 다양한 문학 활동
- 동인지를 발간하는 당대의 소회가 드러난 권두언 작성
- "여기에 葡萄송이가 열리기를 期待린것은 껍으나 오랜 일인가 싶다"(권두언)
- 청포도동인회를 포함하여 관련 지역의 문학 활동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추
- 蓮꽃 한포기가/ 피어나기엔/ 끝 없는 눈물이 있어야/ 하나부다// 못이여!/ 이제는 필때도 되었는데/ 설음이 마구 넘치는/ 눈들이 하나 하나 늘어간다// 이렇게 泡沫을 헤치며/ 하얀빛 한송이가/ 솟아났으면...
—황금찬, 「한 송이 蓮꽃이 피기를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 부분
- 연꽃의 개화를 기대하는 화자의 소망이 서정적인 문체로 전개



존재론적 상상력과 이산의 운명, 최인희

- 황금찬과 같이 교사 신분이었던 최인희는 『청포도』 창간호 편집 담당
- 친자연적 정서를 바탕으로 관조적 세계를 노래
- 陽地바른 언덕 위에/ 겹겹이 싸인 나무 잎들이 포다하게/ 말으는 한낮// 눈은 아까만 山에 슬리어 있고/ 바위 틈에 다시 흐르는 물 소리!!/ 땅속에는 제각기 그리움에 커가는 生命이/ 이 한낮 따스한 잠에 속잎이 생긴다.
—최인희, 「待春賦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 부분
- 「대춘부」는 청포도동인회 동인들의 작품 세계를 전조
-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 사물의 원리와 생을 노래하는 방식
- 창, 나그네, 다양한 자연의 양태 등은 최인희 시 세계에서 반복되는 시적 화소
- **최인희 시 세계의 비극적 운명은 강원 지역 문학장의 형성기 특징인 이주와 이산의 면모에 유비**



형식 변주의 개성, 김유진

- **전형적인 리리시즘 성격의 시 세계와 더불어 특유한 형식적 변주를 지향**
- 늘 웃음이 넘쳐날듯 맑고 밝은 하늘 아래 살고 싶다// 잔조로운 바람속에 眞情 숨길 수 없는 寂寞한 웃음을랑 지니고// 구름 스쳐가는 별판 얹혀진 풀썩에 가슴속 산산한 香氣를 뿜으며// 이른 아침나절 빛나는 햇별 받아 맑은 이슬에 초찰히 씻기운 한송이의 꽃이여
—김유진, 「石竹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 부분
- 석죽, 즉 패랭이꽃을 소재로 한 이 작품 역시 동인들의 기존 시편들과는 상이한 형식
- 「석죽」은 각 연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
- 자연에의 동경과 희구를 청포도동인회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경향으로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
- 「나팔꽃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이나 「눈오는 날에」(『청포도』 2집)는 산문시의 형태
- 『청포도』의 천편일률적 시형에 파격적 요소를 더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고유한 위치를 점유

장소성의 특화, 이인수

- 대개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선 동인들과 유사
- 이인수의 「바다」는 대표적인 자연물의 현재적 경험, 장소와 관련된 친밀한 기억, 서정적 어조로 장소가 환기하는 과거 등 재현
- 오리나무 다옥한 山 숲 하나/ 구름 따라 오르면// 저만치 落水 짓는/ 물 소리 그윽한 곳에// 누님의 집은 도란 도란/ 축축이 이슬에 젖어 있었다// 맨드래미 줄 봉숭아꽃/ 어쩌면 타는 듯 담장가에 피고// 하이얀 모시치마로/ 나를 맞아 주지 않았드라도// 그렇게 총총히 돌아 앉아/ 어진 이웃들을 그 누울 것 없다
—이인수, 「누님의집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 부분
- **자연이 주는 교훈, 삶의 태도로서 자연이 환기하는 가치 등을 상상**

절제와 관조, 함혜련

- 전반적 경향은 앞선 황금찬의 경우와 유사하여 자연물을 표제로 한 작품이 다수
- 단순함 속에 시어가 지녀야 할 언어의 긴장을 유지, 외부로 드러나는 충동을 절제
- 울음 속에/ 왔다/ 가는 이아침// 輓歌는/ 山 벌레처럼 일제히/ 영 가는 길에 피는구나// 눈물을 머금고/ 가슴이 텅 비인/ 한송이 꽃
—함혜련, 「挽歌」(『청포도』 창간호) 부분
- 이 작품의 비애적 분위기는 자연의 삼라만상 속에 내재하는 생명의 이치를 반영
- 화자는 자연의 생리에 인간의 감정을 개입하여 또 다른 감각적 생명을 재현
- **여성 특유의 미세한 감각으로 사물을 포착하고 지극히 관조적인 내면을 표출**

3. 지역 문학장의 정립과 길항

① 지역 문학장에의 영향

- **한국전쟁기 자생한 강원 최초의 동인지**
-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편 고유한 장소 지표인 친자연적 공간성 내면화
- 청포도동인회의 뒤를 잇는 단체는 1959년 조직된 '관동문학회'

② 학생 문단과의 관계

- **청포도동인회의 구성이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특수한 형태였기에, 이들 동인회는 당대 학생 문단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**
- 1950년대 청포도동인회의 활동을 전후하여 강릉 지역에는 다양한 학생 문단 혹은 매체가 등장